

배포일시	2010. 9. 6(월) 11:00 (총 12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	담당자	과장 조진대
		전화번호	051-718-0423

지난 달(8월) 1973년 이후 가장 더웠다.
- 부산 열대야 24회로 최다 기록 -

□ 8월의 기온(부산·울산·경남지방)

- 부산·울산·경남지방의 8월 평균기온과 평균최저기온은 27.3℃와 24.3℃로 평년보다 각각 1.9℃, 2.4℃ 높아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음. 평균최고기온은 31.7℃로 평년보다 1.8℃ 높아 1973년 이후 다섯 번째로 높았음.
- 8월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폭염은 평균 9.2일로 합천 18회, 밀양 17회, 울산 12회, 거창 11회, 산청 9회, 거제 8회, 진주·창원·남해 6회, 부산 3회, 통영 2회 순이었음.
- 열대야 일수는 평균 9.4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음. 부산 24회, 창원 21회, 거제 17회, 남해 11회, 합천 9회, 울산·밀양 8회, 통영·진주·산청 5회, 거창 2회 순이었음.

□ 8월의 강수량(부산·울산·경남지방)

- 8월 한달 간 평균 강수량은 286.7mm로 평년(264.8mm)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108.3%).
-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산청(533.0mm), 거창(475.8mm)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울산(114.5mm), 부산(165.3mm)으로 지역에 따른 강수량의 차가 컸음.
- 서부경남내륙지역에 강수량이 많았고, 부산, 울산 등 해안지방에서 적었음.

첨부 : 8월의 기상분석 자료

[첨부]

2010년 8월 기상특성

부산지방기상청
2010년 9월 6일 11:00발표

□ 8월의 기온 특징

- 8월 평균기온, 평균최저기온 1973년 이후 가장 높아
 -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 평균기온과 평균최저기온은 27.3℃와 24.3℃로 평년보다 각각 1.9℃, 2.4℃ 높아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음. 평균최고기온은 31.7℃로 평년보다 1.8℃ 높아 1973년 이후 다섯 번째로 높았음.
 - 부산의 평균기온은 27.9℃로 평년보다 2.2℃ 높아 1904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았고, 평균최고기온은 30.9℃로 평년보다 1.7℃ 높았으며, 평균최저기온은 25.6℃로 평년보다 2.4℃ 높아 1904년 이래 가장 높았음.
- 8월 상순 평균최저기온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아
 - 평균기온은 27.7℃로 평년보다 1.6℃, 평균최고기온은 32.3℃로 평년보다 1.7℃ 높았음. 평균최저기온은 24.6℃로 평년보다 2.0℃ 높아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음.
 - 부산의 평균기온은 28.3℃로 평년보다 2.1℃ 높아 1904년 이래 다섯 번째로 높았고, 평균최고기온은 31.6℃로 평년보다 2.0℃ 높았으며, 평균최저기온은 25.8℃로 평년보다 2.1℃ 높아 1904년 이래 3번째로 높았음.
- 8월 중순 평균최저기온 1973년 이후 가장 높아
 - 평균기온은 27.0℃로 평년보다 1.3℃, 평균최고기온은 30.9℃로 평년보다 0.7℃ 높았음. 평균최저기온은 24.2℃로 평년보다 1.9℃ 높아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음.

— 부산의 평균기온은 26.7℃로 평년보다 0.7℃ 높았고, 평균최고기온은 29.2℃로 평년보다 0.3℃ 낮았으며, 평균최저기온은 24.8℃로 평년보다 1.3℃ 높았음.

○ 8월 하순 평균기온과 평균최고기온 1973년 이후 가장 높아

— 평균기온은 27.3℃, 평균최저기온은 24.1℃로 평년보다 각각 2.8℃, 3.1℃ 높아 1973년 이후 가장 높았고, 평균최고기온은 31.9℃로 평년보다 2.9℃ 높아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음.

— 부산의 평균기온은 28.6℃, 평균최저기온은 26.1℃로 평년보다 각각 3.6℃, 3.7℃ 높아 1904년 이래 가장 높았고, 평균최고기온은 31.7℃로 평년보다 3.1℃ 높아 1904년 이래 세 번째로 높았음.

표 1. 부산·울산·경남 8월 기온(℃)

	8월 전체			8월 상순			8월 중순			8월 하순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부산·경남 (평년)	27.3 (25.4)	31.7 (29.9)	24.3 (21.9)	27.7 (26.1)	32.3 (30.6)	24.6 (22.6)	27.0 (25.7)	30.9 (30.2)	24.2 (22.3)	27.3 (24.5)	31.9 (29.0)	24.1 (21.0)
부산 (평년)	27.9 (25.7)	30.9 (29.2)	25.6 (23.2)	28.3 (26.2)	31.6 (29.6)	25.8 (23.7)	26.7 (26.0)	29.2 (29.5)	24.8 (23.5)	28.6 (25.0)	31.7 (28.6)	26.1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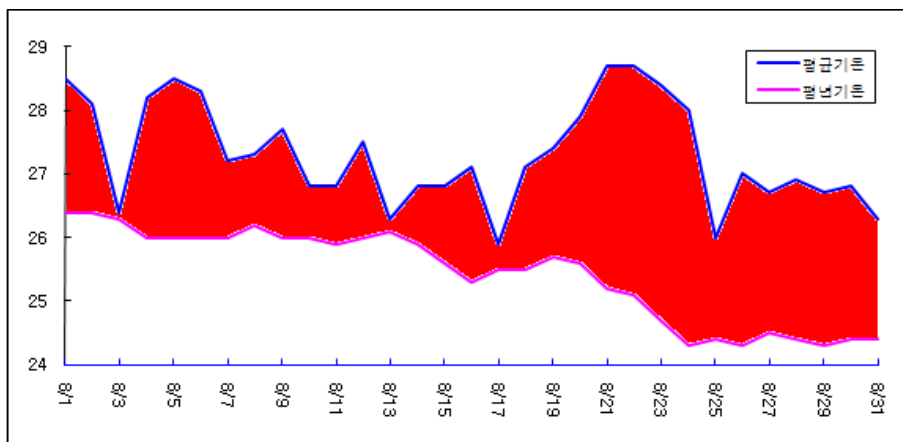


그림 1. 2010년 8월 부산·울산·경남 평균기온 일변화(℃)

○ 폭염

- 폭염은 평균 9.2회 나타나 1973년 이후 여섯 번째로 많았음.
합천 18회, 밀양 17회, 울산 12회, 거창 11회, 산청 9회, 거제 8회, 진주·창원·남해 6회, 부산 3회, 통영 2회 순이었음.

표 2. 2010. 8. 폭염 일수

지역	울산	창원	부산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해
일수	12	6	3	2	6	11	18	17	9	8	6
(평년)	(6.1)	(5.0)	(1.3)	(1.6)	(4.9)	(3.5)	(7.1)	(7.4)	(6.7)	(2.8)	(4.5)

○ 열대야

- 열대야는 평균 9.4회 나타나 2000년 이후 가장 많았음. 올 해 8월 열대야 일수는 부산이 24회로 가장 많았으며, 창원 21회, 거제 17회, 남해 11회, 합천 9회, 울산·밀양 8회, 통영·진주·산청 5회, 거창 2회 순이었음.
- 부산·창원·거제·남해·합천·산청은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나타났음.

표 3. 2010. 8. 열대야 일수

연도	울산	창원	부산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해
2000	2	8	11	9	3	0	0	1	0	2	4
2001	7	14	21	8	4	0	0	1	0	0	5
2002	5	9	6	5	3	0	2	0	0	3	2
2003	3	6	0	7	1	0	0	1	0	2	5
2004	3	9	2	3	1	0	1	0	0	1	5
2005	8	5	6	1	2	0	1	0	3	7	3
2006	6	11	17	3	7	2	5	0	3	3	1
2007	13	8	18	13	6	0	7	3	1	8	5
2008	3	4	4	7	3	0	1	2	0	6	3
2009	1	2	3	2	1	0	1	9	0	1	1
2010	8	21	24	5	5	2	9	8	5	17	11

□ 8월의 강수량, 강수일수 특징

○ 강수량 지역차 커(경남서부내륙 많고 해안지방 적어)

- 부산·울산·경남지방 8월 평균 강수량은 286.7mm로 평년(264.8mm)과 비슷하였고(평년대비 108.3%), 강수일수는 15.0일로 평년(11.6일)보다 3.4일 많았음.

표 4. 2010년 8월 강수량(mm)

지명	전체	울산	창원	부산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해
강수량	286.7	114.5	214.8	165.3	184.5	377.1	475.8	309.6	180.4	533.0	261.8	265.4
평년	264.8	232.5	275.8	238.1	222.0	285.8	256.9	267.1	230.4	335.8	280.5	298.6
평년차	21.9	-118.0	-61.0	-72.8	-37.5	91.3	218.9	42.5	-50.0	197.2	-18.7	-33.2
대비(%)	108.3	49.2	77.9	69.4	83.1	131.9	185.2	115.9	78.3	158.7	93.3	88.9

-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산청(533.0mm)으로 평년보다 197.2mm 많았고, 거창(475.8mm)은 평년의 두 배 가까이 내렸음. 가장 적었던 곳은 울산(114.5mm)으로 평년보다 118.0mm 적어 평년의 절반 수준이었음.
- 강수는 경남서부지역에서 많았고, 부산·울산·통영 등 해안지방에서 적었으며, 울산과 산청의 강수량 차가 4.7배에 이르는 등 지역차가 매우 컸음.
- 8월 상순에는 대기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자주 내렸음. 강수일수는 3.9일(평년 3.4일)로 평년보다 많았으나, 강수량은 56.7mm로 평년(72.0mm)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78.8%).
 - 부산 강수일수는 3일(평년 3.3일)로 평년과 비슷하였고, 강수량도 57.3mm로 평년(57.7mm)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99.3%).
- 8월 중순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았음. 강수일수는 6일로 평년(3.8일)보다 많았고, 강수량도 164.6mm로 평년(75.3mm)보다 많았음(평년대비 218.6%).

- 부산 강수량은 98.0mm로 평년(58.7mm)보다 많았고(평년대비 167.0%), 강수일수는 5일로 평년(4일)과 비슷하였음.
- 8월 하순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기불안정과 열대저압부의 영향을 받았음. 강수일수는 5.1일로 평년(4.4일)보다 많았으나, 강수량은 65.5mm로 평년(117.5mm)보다 52.0mm가 적었음(평년대비 55.7%).
- 부산 강수량은 10.0mm로 평년(121.7mm)보다 적었고(평년대비 8.2%), 강수일수도 3일로 평년(4.1일)보다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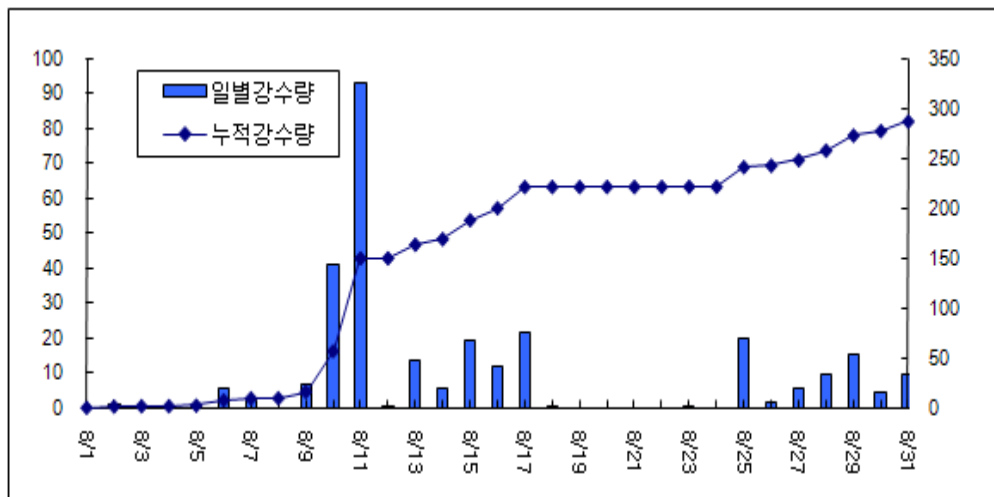


그림 2. 2010년 8월 부산·울산·경남 강수량 일변화(mm)

□ 8월의 기상재해 현황

○ 해양 사고

군장에이소호 기름유출, 일운·남·동부일대 큰 피해 예상

비바람과 높은 파도...방제작업 어려움

2010년 08월 13일 (금) 13:00:50

김영희 기자 kok@geonews.com

지난 12일 밤 11시경 통영시 매도동 롱남방 4.30마일 해상에서 제1종양호와 충돌한 군장에이소호의 방 커치유 유출 사고로 인한 기름덩어리가 파도를 타고 일운면 구조라마을 방파제까지 닿는 등 인근 양식장은 물론 해안 일대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동영해경은 이날 새벽부터 방제선 6척과 거제경찰서, 인근 주민, 시정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방제 작업에 임하고 있으나 비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외도를 비롯 예구, 외천, 구조라, 망지, 양화 등 해안에는 높은 파도를 따라 걸은 기름띠가 계속 밀려오다가 하면 방파제와 인근 바위 구조물에는 기름 덩어리가 쌓이기 시작하고 있다.

또 거제해경일대에서 함목 해수욕장까지 광범위하게 기름띠가 덮치고 있으며 배촌 조류와 바닷물 타고 급속히 인근 해안으로 확산,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이 일대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여름 피서객들이 아직 남아있는 구조라, 외천, 학동죽진주 등물해수욕장 등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경은 출몰 당시 군장에이소호 좌현 4번 화물탱크에 구멍이 생기면서 적재된 벵커C유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중에 있으며 다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는 면포마을에서 보관 중인 유회충전제 등을 인근 투입하고 있으며 해경은 오전 10시 통영 및 거제 일원 수산관계자와 관계자를 소집, 긴급방제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거제 남해안 기름유출 '비상'...방제작업 총력

유조선 충돌사고로 벵커C유 20t 유출돼 해경 등 관계기관 기름띠 제거작업 구슬땀

12일 거제 앞바다에서 일어난 유조선 충돌사고로 벵커C유가 유출되면서 남해안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사고 해상에는 해경 경비정 20여 척이 급파돼 기름 제거 작업에 착수했으며, 거제 구조라 방파제에는 주민들과 관계기관 등이 나와 밀려오는 기름을 건져냈다.



경남 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200여명과 지역주민들이 13일 오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 방파제와 해안가에서 선박충돌로 유출된 기름이 해안가까지 떠내려오자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 사고는 전날인 12일 오후 10시50분경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남동방 2마일에서 400급 유조선 '군장에이소'와 트롤러선 '제1종양호'가 충돌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유조선에 있는 8개 기름탱크 중 한 곳에 구멍이 뚫리면서 안에 있던 벵커C유 14t 가량이 바다로 흘러나왔다.

유조선 측은 재빨리 기름을 다시 빨아들였지만 전부 거둬들이는 데에는 실패했으며, 해경은 모두 약 20t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 측은 "유출된 기름은 거제 남동부해안을 따라 부산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고지점 주변 해역에 양식장이 있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7시경에는 유출된 기름이 사고현장에서 약 18㎞가량 떨어진 거제 구조라 방파제에 흘러들여오기 시작했다.

해경과 경찰, 시청, 군부대 등 관계기관 관계자와 주민 등 500여명은 기름을 막아낸 이날 오전 일찍부터 방파제에 모여 흡착포 등을 이용해 기름을 걸어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근 대기업들도 봉사단을 파견해 방제 작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측은 기름 유출이 확인되자 선박탈출을 파견해 흡착포와 오일펜스 등을 현장에 공급했다.

이어 300여명의 봉사단 직원을 파견해 함께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주말에도 1000명 규모의 봉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기름제거에 힘을 보태고자 봉사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초기 방제작업이 잘 이뤄져 생각만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말을 지나면 어느 정도는 방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0. 8. 13. 거제중앙신문

2010. 8. 13. 연합뉴스

○ 기상 관련 기사

"이안류 휩쓸리면 일단 힘빼고 기다리세요"

해운대 사물연속 발생 '인양' 유속 빠르고 길이 200m 이상 허둥대면 위험... 45도 방향 탈출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에 '불청객' 이안류(靑岸流, 역파도)와 해파리 피해가 반복해 일어나고 있어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생 원인이나 대책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피서객의 주의가 요망된다.

■ 불청객 '이안류' 사물제 계속

지난달 31일 낮 12시20분경 해운대해수욕장 1, 2번 망루 앞 해상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하던 김모(17) 군 등 피서객 10명이 40~50cm 떨어진 1차 저지선 근처까지 떠밀려갔다. 긴급출몰한 119수상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앞서 같은 달 29일과 30일에도 세 차례의 이안류가 물놀이객 50여 명을 덮치는 등 사물제 이안류가 발생했다. 이안류는 유속이 빠른 데다 길이만 200m 이상이기 때문에 한 번 휩쓸리면 수영에 능숙한 사람도 빠져나오기 어렵다.

문제는 이안류 발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안류는 현재 바닷속 큰 구덩이로 바닷물이 빨려 들어가 회전하면서 해안 쪽의 바닷물까지 끌고 와 역파도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기상청과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동해와 남해의 해류가 교차하고 바람이 강해 이안류가 발생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9일에는 주변 해역에 풍황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강했고, 31일에도 초속 5.5m의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1~1.5m를 기록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파도가 높으면 이안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우영 119 수상구조대장은 "이안류가 발생하면 흐름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역에 나오거나 이안류와 45도 방향으로 수영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며 "성급한 마음에 허둥대면 힘이 빠져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기상청은 물놀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이안류 현장 관측을 통해 원인규명과 예방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안류 흐름과 탈출 방향



관련기사 * 부산 해수욕장 피서 절정... 해운대 등 7곳 300만 인파

폭염 부른 주문 '라니냐'

태평양 해수면 차가워지는 현상 한국 고온다습 유발...올 말까지

김용호 기자 yoh30@koqj.co.kr

올여름의 무더운 날씨를 라니냐 초기 현상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열대지역 중·동부 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일컫는 라니냐는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가을과 겨울에도 우리나라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부산기상청은 4일 '올여름 이상고온의 원인과 전망'이란 자료를 통해 지난 6월부터 적도 부근 동태평양해역에 해수면 온도가 낮은 라니냐 초기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열대 태평양의 더

운 해수는 서태평양으로 이동했고, 인도네시아 부근을 비롯한 북서태평양 중위도 해역에 강한 고수는 벨트 가형성했다. 이는 강한 대류활동(deep convection)을 발생시켰고,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의 강화로 이어졌다. 또 중위도 상공 10km 부근에 위치한 제트기류가 북쪽의 찬기운 남하를 저지한 것도 무더위를 불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고온다습한 날씨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남부 내륙과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부산기상청 박인태 예보관은 "라니냐가 올해 말까지 지속된다면 가을 이후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10. 8. 2. 국제신문

2010. 8. 5. 국제신문

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 시민건강 비상

부산 어제 34도-전력사용 급증
노약자·근로자 사고 잇따라
시소방본부 '폭수구급대' 운영

이영숙 기자 kyo@kookjeon.com

5일 부산지역 기온이 4년 만에 34도까지 치솟는 등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강기다 이어지면서 시민 안전 및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기상청은 이날 부산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기록, 2006년 8월 28일 34.5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34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또 부산지역은 지난날 모두 8월의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는 1996년 기상청이 열대야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부산에는 이날 들어서도 벌써 3번이나 열대야가 발생했다. ▶관련 기사 7면

이처럼 폭염이 이어지면서 공사장 근로자들에 치해 쓰러지고, 전차 사용자들이 연일 치코저를 경험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산시소방본부는 지난날 사각지대 시골 등지에서 특히 위험에 처한 노인들 구호를 위해 특별반을 출동했다. 앞서 지난날 중일에는 해운대구 좌동에서 기온이 34도 이상인 폭염 때문에

쓰러진 것을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를 했다. 또 지난날 27일에는 해운대구 반송동의 건축공사장에서 근로자 김모(66) 씨가 열병에서 일하다 근육경련을 일으켜 소방구조대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불볕더위 때문에 각종 사고가 속출하자 부산시소방본부는 다음 달까지 중부소방서 중일119센터 등 부산 지역 25개 119구급대를 '폭염 특수구급대'로 지정, 운영에 들어갔다. 폭염 특수구급대는 구급차량에 얼음조끼 등 폭염에 대비한 필수 구급장비를 갖추고, 폭염특보 발생 때 노약자 및 집주인 등에 대한 대처할 예정이다. 무더위가 지속되자 지역경제부는

기온 '폭염기온' 내부 28도 유지'라는 목표적인 지침을 배워 민원심과 도서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는 26도까지 냉방기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무더위로 전력 소비량이 급증, 부산-울산의 전력 피크(최대 전력사용량)도 연일 기록을 경신하면서 한국전력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현재 전력 피크 최고 기록은 지난날 27일 오후 3시 기록된 7727MW로, 지난날 28일 오후 2시 7399MW를 앞질렀다.

부산의 7월 한달간 전력사용량도 168만2000MWh로, 지난해보다 7.5% 늘었다.

자동차 생활 필수품 BS 해피오토론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자동차 할부금융 신상품
BS 부산은행
http://www.pusanbank.co.kr

폭염-열대야-폭염-열대야-

피서 나섰다 더위 먹었다

주말-휴일 낮기온은 33도 안팎

김동호 기자 kdh@kookjeon.com



“이안동 학자” 모래바위길. “물놀이 이안동 (여도도) 1기반해 발영하 26일 오후 20분 안동도 두리 가늘은 두 선원 등안동에서 폭염 30도 안팎 열대야로 해안도로 해안도로 있다. 김동호 기자 kdh@kookjeon.com

들어본 피서의 경험은 여름 주말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된다. 부산기상청은 주말인 7일과 8일 부산-울산 권남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고 6일에 보였다. 앞서 6일 부산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낮 최고기온은 33도를 기록했으며, 아침 최저기온도 23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아침 최저기온으로는 1994년 8월 14일 27.5도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부산기상청 김형욱 예보과장은 “부산과 경남 내륙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자외선지수 8~9를 넘어서는 등 매우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갑자기 나시 열대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특히 지난 주말 서부권 내륙에서 7월 20일 이후에 가장 많은 일사 다소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것도

있겠다고 예보하면서 산악지역이나 일교차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오는 9일까지 약한

선동기에 불나고 냉방차 질식사도

주영복 기자 kyo@kookjeon.com

무더위로 인한 사건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6일 새벽 부산 사구 부민동 A 아파트 화재로 3명 사망, 1명 부상, 1명 중상을 입은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피씨기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차량 안에 사람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보고, 화재로 인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화재로 경찰 수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화재 당시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이후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8시에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모야리해 추후 주차장에서는 김모(44) 씨가 자신의 승합차량에서 승객 2명 사망, 1명 부상을 입은 화재가 발생했다. 김씨는 운전 중 졸음으로 졸아 누운 상태로 승객 2명 사망을 입은 화재였다. 경찰은 김씨가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차량 안에 사람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보고, 화재로 인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화재로 경찰 수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에어컨 고장수리 '별박기'

이영숙 기자 kyo@kookjeon.com

냉방기가 사용이 급증하면서 에어컨 고장도 도수 AS 접수자가 폭주하고 있지만 서비스기 지원과 서비스비자의 부족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에어컨 고장수리 AS 센터에 에어컨 수리를 위해 전화 AS 센터에 지나서야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경우 30일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시지역은 일주일 이상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AS센터 관계자는 “예대 이날부터 에어컨 수리 피크기 많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30~40% 증가해 서비스 지원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0. 8. 6. 국제신문

태풍 '텐무' 부산-경남 곳곳 활취었다

가소수 불타고 차량발수 피해
해운대구 앞바다에 물고기
차량 50대 이상 수습

이영숙 기자 kyo@kookjeon.com



태풍은 태풍기온을 낮추는 한편 부산사구 부민동 A 아파트 화재로 3명 사망, 1명 부상을 입은 화재가 발생했다. 김씨는 운전 중 졸음으로 졸아 누운 상태로 승객 2명 사망을 입은 화재였다. 경찰은 김씨가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차량 안에 사람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보고, 화재로 인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화재로 경찰 수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부산지역의 태풍 '텐무'의 영향이 6일 저녁에 이어지고, 그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에는 부산 해운대구 동 수영장 해안에서 태풍의 영향이 나타나며 물고기 차량 50대 이상 수습

경남에 이어지면서 지역 곳곳에 피해가 예상된다. 부산 해운대구 동 수영장 해안에서 태풍의 영향이 나타나며 물고기 차량 50대 이상 수습

2010. 8. 7. 국제신문



태풍 텐무에 수몰된 건물에 인양되는 차량을 입은 부산 사구 부민동 A 아파트 화재로 3명 사망, 1명 부상을 입은 화재가 발생했다. 김씨는 운전 중 졸음으로 졸아 누운 상태로 승객 2명 사망을 입은 화재였다. 경찰은 김씨가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차량 안에 사람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보고, 화재로 인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화재로 경찰 수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태풍 텐무에 송도방파제 노점 20여 곳 초토화
업주는 “장사 잘돼” 자리고수
구청은 “별수 없다” 수수방관

2010. 8. 12. 국제신문

부산 34.1도 4년 만에 '최고'

이런 후더의 내일 중순까지

이영숙 기자 kyo@kookjeon.com

지난 주말과 휴일 부산-울산 권남지역에 연이어 폭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뽕뽕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이 같은 더위는 다음 달 중순께에야 누그러질 전망이다.

부산기상청은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다음 달 초순까지 계속 머물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기상청은 추석(9월 22일)이 지나서야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가을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기상청은 최근 우리나라에 평년에 비해 강하게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고온다습한 남서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중위도 상공 10km 부근에 위치한 제트기류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남쪽으로 내리오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2일 부산의 낮 최고기온은 34.1도로, 2006년 8월 8일 34.5도를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2010. 8. 17. 국제신문

해안사고로 얼룩진 주말

50대 형제 등 2명 사망 1명 실종
누리마루 앞 11명 합출리기도

김동호 기자 kdh@kookjeon.com

해안사고로 얼룩진 주말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모야리해 추후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 사망, 1명 부상을 입은 화재가 발생했다. 김씨는 운전 중 졸음으로 졸아 누운 상태로 승객 2명 사망을 입은 화재였다. 경찰은 김씨가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차량 안에 사람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보고, 화재로 인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화재로 경찰 수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철전강서 풀놀이 하던 여중생들 강물 휩쓸려 1명 사망 1명 실종

김세주 기자 ksj@kookjeon.com

29일 오후 5시 20분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령리 송림공원 앞 철전강에서 전남 광주시 모여중학교 교직원 15명(교장 1명, 교사 14명) 등 15명 여중생이 풀놀이 하던 중 강물에 휩쓸렸다. 이 사고로 강 양이 억사 사고로 파악은 실종됐으며 양 양은 실종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은 광양 모 교회 학생 신도들로 다른 신도 1명과 함께 이 곳으로 야외회를 왔다가 풀놀이를 하던 중 낮에 상류지역에서 내린 비로 강물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변을 당했다. 구급대와 경찰은 약양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환도 불타다 수심이 깊어 난항을 겪고 있다.

2010. 8. 23. 국제신문

2010. 8. 30. 국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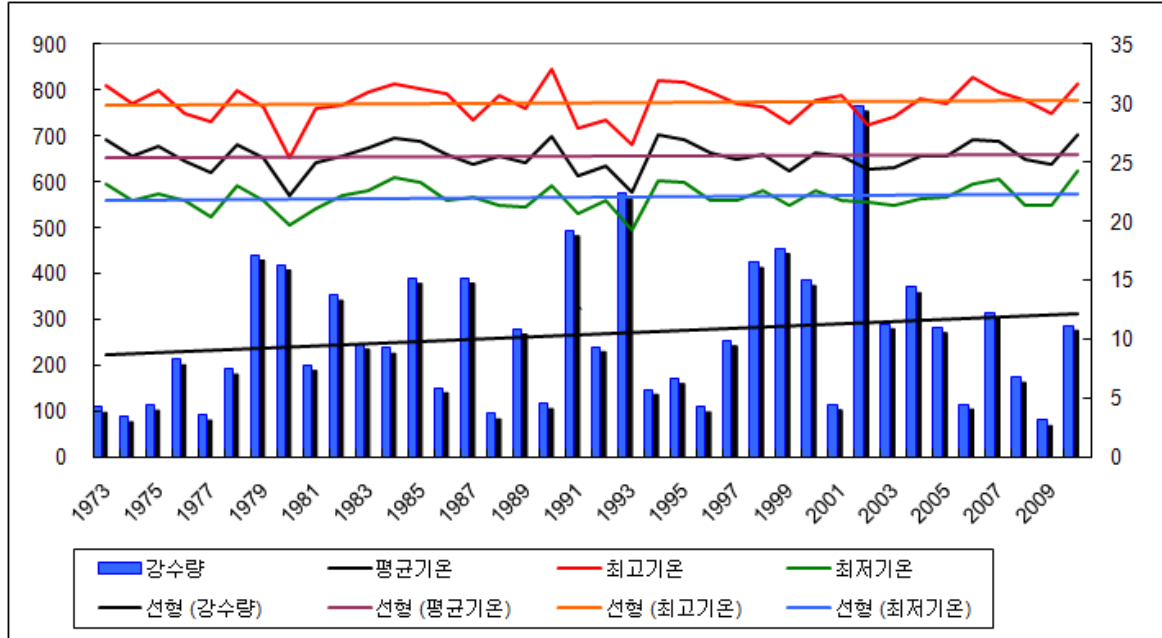
□ 향후 전망

- 9월 중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날이 많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대기불안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9월 하순에는 중국 내륙에서 접근하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으며, 지역차가 크겠음.
- 10월 상순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부산울산경남	평 균 기 온	강 수 량
9월 중순	평년(19~22℃)보다 높겠음	평년(45~60mm)과 비슷하겠음
9월 하순	평년(17~21℃)보다 높겠음	평년(32~57mm)보다 많겠음
10월 상순	평년(15~19℃)과 비슷하겠음	평년(17~30mm)과 비슷하겠음

- ※ [붙임1] 부산·울산·경남지방의 8월 기상자료
 [붙임2] 부산의 8월 기상자료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평균 강수량(1973-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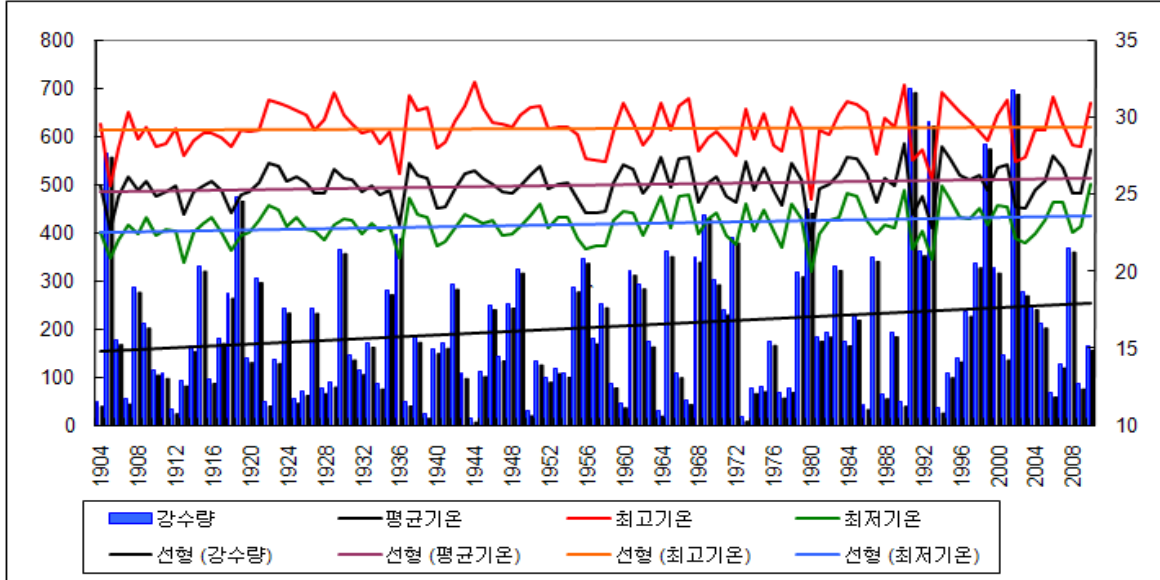
□ 평년대비 기상요소 값

요소(부산·울산·경남)	2010년 (a)	평년값 (1971-2000) (b)	a-b	1973년 이후 순위(5위까지만)
평균기온(°C)	27.3	25.4	1.9	1위
평균 최고기온(°C)	31.7	29.9	1.8	5위
평균 최저기온(°C)	24.3	21.9	2.4	1위
강수량(mm)	286.7	264.8	21.9(108.3%)	-
강수일수(일)	15.0	11.6	3.4	-
일조시간(hr)	161.6	199.0	-37.4(81.2%)	-
폭염일수(일)	9.2	4.6	4.6	-
열대야일수(일)	9.4	3.4('00~'09평균)	6.0	1위('00년 이후)

□ 연대별 기상요소 값

연도	평균 기온 (°C)	평균 최고기온 (°C)	평균 최저기온 (°C)	강수량 (mm)	강수일수 (일)	일조시간 (hr)	폭염 일수(일)	열대야 일수(일)
1973-1980년(a)	25.2	29.5	21.7	207.5	10.8	216.1	3.8	-
1981-1990년(b)	25.9	30.6	22.2	245.2	10.8	210.4	4.0	-
1991-2000년(c)	25.2	29.6	21.8	324.9	13.1	172.6	4.9	-
2001-2010년(d)	25.7	30.2	22.2	278.7	12.9	171.1	4.8	4.0
d-a	0.5	0.7	0.5	71.2	2.1	-45.0	1.0	-
d-b	-0.2	-0.4	0.0	33.5	2.1	-39.3	0.8	-
d-c	0.5	0.6	0.4	-46.2	-0.2	-1.5	-0.1	-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평균 강수량(1904-2010년)



□ 평년대비 기상요소 값

요소(부산)	2010년 (a)	평년대비 (1971-2000) (b)	a-b	1904년 이후 순위(5위 까지만)
평균기온(°C)	27.9	25.7	2.2	3위
평균 최고기온(°C)	30.9	29.2	1.7	-
평균 최저기온(°C)	25.6	23.2	2.4	1위
강수량(mm)	165.3	238.1	-72.8(69.4%)	-
강수일수(일)	11	11.3	-0.3	-
일조시간(hr)	212.6	203.9	8.7(104.3%)	-
폭염일수(일)	3	1.3	1.7	-
열대야일수(일)	24	8.8('00~'09평균)	15.2	1위('00년 이후)

□ 연대별 기상요소 값

연도	평균 기온 (°C)	평균 최고기온 (°C)	평균 최저기온 (°C)	강수량 (mm)	강수일수 (일)	일조시간 (hr)	폭염 일수(일)	열대야 일수(일)
1904-1910	25.0	28.5	22.4	207.8	11.4	225.3	0.0	-
1911-1920년	25.0	28.6	22.4	188.4	10.3	224.3	0.2	-
1921-1930년	26.0	30.3	23.2	163.1	10.3	253.0	1.8	-
1931-1940년(a)	25.3	29.2	22.9	160.4	10.6	238.5	1.7	-
1941-1950년	25.6	30.1	22.9	169.3	9.0	257.1	2.4	-
1954-1960년	25.2	28.9	22.8	165.4	10.0	201.5	0.7	-
1961-1970년	26.1	29.4	23.6	241.9	11.8	222.1	0.7	-
1971-1980년(b)	25.3	28.6	22.7	188.3	10.6	187.4	0.1	-
1981-1990년	26.3	29.9	23.6	180.6	10.5	224.6	2.2	-
1991-2000년	25.7	29.1	23.3	345.3	12.8	199.6	1.6	-
2001-2010년(c)	25.8	29.2	23.4	239.4	11.2	178.5	2.4	10.1
c-a	0.5	0.0	0.5	79.0	0.6	-60.0	0.7	-
c-b	0.5	0.6	0.7	51.1	0.6	-8.9	2.3	-

<용어해설>

- '부산·울산·경남'의 의미는 10개 관측지점의 자료를 평균한 것임. 예를 들어 금년 8월의 강수량 286.7mm의 의미는 10개 지점의 8월 강수량을 모두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임.
- 평년값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 평균값임.
- 부산·울산·경남 평균은 관측지점 수가 급증하여 안정적으로 자료를 생산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10개 지점을 평균한 것임.
 - 1973년 이후를 비교한 이유는 현재 '부산·울산·경남' 평균하는 10개 지점의 관측시작 시기가 1973년 이후가 대다수이므로 1973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 부산의 경우 1904년부터 분석 자료임.

<연대 예시>

- 1970년대 : 1971년부터 1980년까지를 의미
- 2000년대 :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의미